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Œ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계웅

## 믿음의 한 걸음, 십자가와 함께!

교회설립 56주년 기념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들 아주 확실히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며,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실수투성이었던 과거보다, 어떻게 될지 모를 불확한 미래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는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마 6:34). 2009년 후반기에도 진종품루를 비롯한 신령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이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십자가의 도구가 되도록 매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토요일에 있을 총력 교회주변 전도로 나와 집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119:133).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다(로 4:25). 이 자유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 온 것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죽음 후에 오는 생명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로 칭함을 받고 그의 지체가 될 때에 받는 영원한 새 생명이다(요 3:16).

바울은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불순종과 순종으로 설명한다(로 5:19). 인류의 역사 속에 아담과 그리스도는 반대편에 서 있다. 아담에게는 죽음의 세계가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의 세계가 있다. 이 사이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시대를 '율법이 있기 전'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후와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의 조건도 또한 다르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세상에 들어 왔다(요 1:17). 신학자들 간에는 인류의 역사를 '율법이 없던 시대, 율법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렇게 세트로 나누어 해석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죽음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뿐이지 중간은 없다. 율법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중간에서 있다. 죽음과 생명의 두 세계 사이에 끼여 있다.

율법은 죄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의를 요구한다. 의를 강력하기 위하여 세워졌으나 율법이 속하여 있는 세상은 죽음의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의

를 이룰 수 없다(로 8:3-4). 선을 요구하나 선을 이루어 줄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로 3:20). 율법은 오직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뿐만 아니라 그 역할과 뜻을 깨닫게 한다(갈 3:21).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린 바울에게는 율법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여 그 죄의 힘을 끝까지 가게 하였다. 물론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죄가 있는 곳에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었다(갈 3:19). 죄가 율법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죄가 살아난 것이다(로 7:8-9). 율법은 죄에게 기회를 주어서 죄가 살아나게 돕는다.

바울은 이제 눈을 돌려서 율법이 어떻게 은혜와 함께 일하는가를 지적해 준다. 율법 자체가 죄를 극복시킬 수는 없다. 죄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죄가 극치에까지 나타나서 그 힘을 발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요, 그렇게 됨으로서 율법은 죄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룬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돕는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죄인을 내어줌으로서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 세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열어 놓으신 길이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류 안에 율법이 들어 왔다. 율법은 죄를 다 드러내어 극치에 달하게 한다. 동시에 죄인들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다. 그 때에 율법은 그 의무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로 5:2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즐거워하며 영광 중에 완성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시작하고 또한 끝나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것이 없었다(로 5:1,21).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그의 전부였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신다. 아멘.

# A BELIEVER'S DESIRE

*<sup>(36)</sup>Simon Peter said to Him, "Lord, where are You going?" Jesus answered, "Where I go, you cannot follow Me now; but you will follow later." <sup>(37)</sup>Peter said to Him, "Lord, why can I not follow You right now? I will lay down my life for You." ...*

*<sup>(11)</sup>"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otherwise believe because of the works themselves. <sup>(12)</sup>"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believes in Me, the works that I do, he will do also; and greater works than these he will do; because I go to the Father. (John 13:36~14:12)*

All Christians have a desire for Jesus! The problem comes when one's desire for Jesus is not in tune with God's will. How can you tell if a desire is good (in God's will) or bad (not in God's will)? If the desire is self-centered then it is bad, because the essence of sin is the determination to have one's own way. It is an act of idolatry in that one has put self in the place of God. Good desire is simply the opposite. It is putting the desire of God's will first. When the Lord is our greatest desire, all other desires find their proper expression. Jesus' disciples slept, ate, and listened to Him for over three years. When it was time for Jesus to take the cross, He sat down with them and explained the terrible times that were coming. He asked them to please remember the things He had said, and to keep the faith. Here in today's Bible passage, as Jesus finalizes His time with His disciples, they start asking Him questions. Their concerns are based upon their own desires not being fulfilled. Let's look at the disciple's questions to better understand and learn the difference between self-centered and God-centered desires.

Jesus told Peter, "Where I go, you cannot follow Me now; but you will follow later" (Jn. 13:36). Peter asked, "Lord, why can I not follow You right now" (Jn. 13:37). Peter wanted to follow Jesus now. His desire to follow Jesus is a good thing, but Jesus specifically told him not now. If Jesus asks you to do so something, is your faith greater than His? Peter thought his plan was the same as God's, but it wasn't. His decision and desire to follow Jesus was good, but his timing was off. God's time for Peter to follow was different from Peter's time. Many of today's Christians make the same mistake as Peter. They want their time, will and way. Their decisions cause them to fail. God's timing, method, and principles are the only way to bring about godly results. It's your faith that keeps you on the narrow path. When you give up your opinions and plans, and believe only what God says, then your heart's desires will keep you on track.

Jesus told Thomas, "And you know the way where I am going" (Jn. 14:4). Thomas responded,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do we know the way" (Jn. 14:5). Jesus had just reassured Thomas about His going to heaven,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Jn. 14:1~3). Jesus explained God's way very clearly. He told Thomas where believers would be dwelling, and that He was leaving now to prepare things. He even said that He was coming back to lead us to heaven. Jesus knows the way. He knows how, why, and everything! Thomas' desire for heaven was good. He wanted time in those mansions, and to make sure that he would be included. He was willing to do anything to get there. His problem is that he lacked assurance. He should have been sure of heaven because Jesus told him that he knew the way. Those who know Jesus know the way to heaven. Jesus settled Thomas' concern in saying,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What does the way mean? It means that the will of man may choose it. What does the truth mean? It means that the mind of man may comprehend it. What does the life mean? It means that the heart of man may experience it.

Jesus continued, "If you had known Me, you would have known My Father also; from now on you know Him, and have seen Him" (Jn. 14:7). Philip said to Him, "Lord, show us the Father, and it is enough for us" (Jn. 14:8). In other words, Philip's desire was to see God because he thought that seeing God would satisfy things. It seems like a reasonable request, but it reveals that Philip had not been listening. There are a lot of Christians who come to church with excitement to sing and pray, but when it comes time for the sermon they close their mind. They don't listen to God's message. Jesus said, "Have I been so long with you, and yet you have not come to know Me, Philip?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that I say to you I do not speak on My own initiative, but the Father abiding in Me does His works" (Jn. 14:9~10). Here we find the mystery of the Trinity. To have the Holy Spirit,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To believe in Jesus, you have to hear God's word. To hear God's word, you have to listen!

My lovely brothers and sisters, are your desires in God's will? When you look deep inside your heart, are you finding earthly desires, like money, success, and fame? What will it take to satisfy your desires? Are your desires similar to the disciples? The Apostle Paul's greatest desire was to be with Jesus. Please remember that all your desires are fulfilled in Jesus. **A**

## | 다음 주일 설교 |

## 제자들의 요구

(3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 (38)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39)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3:36~14:12)



김성관 목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소망이 선한 것인지(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그 소망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그것은 악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를 올려놓는 우상숭배의 행위입니다. 선한 소망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될 때 다른 모든 소망은 가장 적절한 형태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저야 할 때가 다가오자 예수님은 그들과 마주앉아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자 제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직 이루지 못한 자신들의 욕망에 기초해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망과 하나님 중심적인 소망의 차이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 제자들의 질문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 제자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요 13:36). 그러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요 13:37).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요구는 선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니라고 그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결심과 소망은 선했지만 하나님의 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때는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도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실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원칙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견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믿을 때 이러한 마음의 소망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 도마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기 원한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요 14:4). 도마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요 14:5). 예수님은 바로 도마에게 자신이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

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 매우 명료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신자들이 거하게 될 처소와 이제 자신이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 떠날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갈지, 왜 가야 하는지, 그 밖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천국에 대한 도마의 소망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집에 거하게 되기를 원했고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작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대해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이르는 길을 압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염려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여기에서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 빌립은 아버지를 보기 원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요 14:7). 빌립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요 14:8). 다시 말해 빌립의 요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립이 지금까지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찬양과 기도에도 열심을 품고 교회에 나오지만, 설교 시간이 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요 14:9~10).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청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물질이나 성공, 명예와 같은 세상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망이 혹시 제자들의 요구와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9. 9)

## 성령의 가르침 (고린도전서 2:9-16)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전 2:9).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다(고전 2:10).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다(고전 2:1-3). 그는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였다(고전 2:4-5). 그러나 자신의 것으로 가득한 세상의 많은 사람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며 지금도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다(고전 2:6-8).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져야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

● 성령님의 특성은 신자의 삶에 성령님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성령님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16:8). 성령님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 주신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는 사역이다(고전 2:11,14).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롬 11:33). 성령님의 가르침을 무시할 때 우리는 전통과 율법에 얽매게 된다. 반면에 복음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비록 핍박과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증거한다.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고전 2:10).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사 43:10)은 신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운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를 부음에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도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요일 2:27). 성령님의 감동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는다(벧후 1:21). 그럴듯하게 보이는 세상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철대로 실수가 없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13).

● 마음을 밝혀주신다 성령님은 신자의 마음을 밝혀 주신다. 성령님은 죄로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엡 1:17).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여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이다(요일 2:10-11). 그러서 그의 기도와 찬송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전 14:15). 또한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신다(고전 2:13). 복음을 깨달았음에도 전통과 율법에 얽매어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밝혀신 분도 성령님이셨다(행 10:19). 다양한 종족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교회(행 13:1)의 사역을 지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셨다(행 13:2). “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에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히 3:8,15).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죄인 중의 괴수임을 고백하자.

성령님은 신자의 삶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매번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은 성령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든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야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착한 영들은 유혹한다. 속지 말라. 성령님이야말로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또한 어둠을 밝혀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님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모든 것 다 버리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어, 채워 주소서.” 아멘.

### 마가복음 강해 88

## 마가복음의 부록 (16:9-20)

받으며 결국 복음과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16장 9절부터는 마가복음의 부록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며시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막 16:9-10). 이 말씀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달랐고 일치한다(요 20:1,18 ; 눅 24:1,10-11). 이 말씀에서 눈여겨 볼 것은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다.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막 16:11). 특히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과거에 귀신들려 이상행동을 보였던 막달라 마리아(막 16:9)였기에 더욱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일 뿐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으며 믿음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연마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증언조차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막 16:12-13). 제자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죽음만 인정했을 뿐 부활을 믿지 않았다(눅 24:13,25,33).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을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막 16:14). 제자들을 꾸짖는 기사는 오직 마가복음에 기록하였다.

제자들을 꾸짖으신 뒤에 예수님은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마 28:16-20).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마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내 손을 얹어줄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막 16:16-18).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막 16:19 ; 눅 24:50-51). 그리고 이어지는 “제자들이 나 후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막 16:20)는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어 오순절 성령강림 후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전파의 현장에서 모두 성취되었다(행 8:7, 19:12, 28:3-6).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막 1: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한 마가복음 강해를 마쳤다. 무엇을 깨달았으며 발견했는가? 아니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유와 순종이 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순종의 삶이 있는가? 비천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들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 매이지하며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로 살아가. 자유를 잃어넘어 세 순종만을 강요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 복음이 초점을 맞추자.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전파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죄인들인 우리에게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시며 복음전파의 기회를 주셨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여호와 이레

주님의 은혜로 단기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훈련과정을 통하여 자기 부인과 절대 항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즈음에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성심사 때마다 부족한 면이 드러났고, 자기 부인의 참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지하게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기도를 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만난 고등학생은 시내에 살지만 지난 밤에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에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말을 조금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전하겠느냐고 했더니 동행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으나 우리의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중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또 한 여인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트럭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마을에서는 아픈 다리를 보이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나를 은근히 드러내기를 바라는 죄인 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남아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재원(집사, 12교구))

선교가 처음인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으로 선교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하시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출발 전부터 몸이 안 좋아 사역하는데 다른 팀원에게 지장을 주거나 걱정을 끼칠까봐 주님께 기도한 후, 다른 일이 아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러 왔으니 주님이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모두 맡기로 했습니다. 매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잠자리도 먹는 것도 예민한 저는 떠나오기 전에 많이 걱정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새 생각일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그저 감사하며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묵상해 보면 바로 곁에서 저를 지키시고 사용하셨던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와 또 선교하는 중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 십자가의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제 입술을 지키시고 제 가슴에 함께 하셔서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장이 되어 간절함으로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만나는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무릎까지 꿇고 영접기도를 끝낸 후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씩 하며 손을 잡고 옆집으로 안내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아늑하고 서늘했던 이 중추하며 믿고 부렸으므로 거두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저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거두어 주셔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저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맑은 눈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던 그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역을 마감하면서 부족함과 아쉬움도 많았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제 저는 다만 주님께 그 영혼들을 맡기는 기도만 할 뿐, 주님께서 뜻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밟고 지나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오고 또 오는 세대들에게 새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자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쓰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광준(집사, 6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9월 16일(수) ~ 9월 25일(금) | 8교구 3팀  | 오형석 |
| 9월 16일(수) ~ 9월 24일(목) | 23교구 3팀 | 정중환 |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9월 7일(월) ~ 9월 15일(화) | 17교구 4팀 | 박찬옥 |
| 9월 8일(화) ~ 9월 16일(수) | 2교구 4팀  | 박종철 |

주님을 몰라 아무도 세계에서 살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의 빛이 찾아왔다. 50세 되도록 부처를 섬겨서 "나도 부처와 같이 깨우쳐 해탈을 하리라." 꿈꾸며 살던 나에게 지금은 장로가 되신 인도자를 통해 천령교회에 왔다. 2008년 6월에 세례를 받았으니 아직은 새신자이다. 처음엔 교회의 웅장함과 예배의 성스러움에 감격스러웠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5주만에 걸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것이 있었다. 믿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 그 자체에서 힘이 느껴졌고, 목사님이 말씀 도중에 가슴 아파 우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우릴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보혈의 은총이 전해졌다. 꼭 예수님 마음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았다. 그 때마다 가슴 저 밑에서부터 나도 눈물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빛이 아닌가 생각된다. 눈물로 호소하시며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자녀가 됨을 매일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게 되었다.

지금은 여고 때 학교 성가대를 했던 경험으로 '천양대원 앙성부'를 수료하고 합월루아 천양대를 섬기고 있다. 또한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께 예쁘게 보였는지 부족한 나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선교사로 불러주셨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바쁜 중에도 기도로 감당하게 하셨다. 3개월에 걸쳐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오직 끝 마을만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처음이라 어쩔 줄 몰랐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미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부족한 입술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가지만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자들도 늘 복음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알게 하셨다. 또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 깨닫게 하셨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는 말씀 같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심같이 그들에게도 구원의 약속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간구하며, 선교지에서 만난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할 것을 주님께 약속했다.

(서진숙(성도, 16교구))

회개하나라  
크리스천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제24장  
십칠절

#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24)

▶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요즘은 너무 행복하다. 말씀이 늘 나를 깨우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어느덧 56년 외 세월을 품은 교회에 주님이 용하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살아 계시는 주님이 이젠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 같다. 그러므로 하루를 감사하면서 복음을 알리는 일에 더욱 열심이 아겠다. 주님은 충언교회를 사랑하시어 좀더 확실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나와 나 뮐은 주님의 은혜라. 김금순(권사, 24교구)

▶ 교회가 세워진지 56년 되었으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과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대기(외선부)

▶ 56주년을 맞이하여 매 주신 충언교회를 영양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남아 모든 부서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언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권미숙(집사, 4교구)

▶ 예수님 우리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김희진(유아부)

▶ 알렐루야! 우리 충언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성립이 50대 중반을 넘어 56세가 되었다니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역경과 시련이 있었지만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은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이제 기쁨과 부흥의 역사 속에서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 오르니 감사합니다. 충언교회의 반석이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김명희(집사, 10교구)

▶ 주 예수와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까지 열매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충언교회 56주년을 축하합니다. 신인순(권사, 12교구)

▶ 십자가 복음으로 나와 되 열매로 나가 가며, 전국 확장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 용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주영선(집사, 14교구)

▶ 예수님의 사랑 충만, 성령 충만, 찬양 충만 충언교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안정옥(집사, 2교구)

▶ 여호와와 집, 주님의 성전 56주년을 맞이 하여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 찬송으로 존귀한 주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순오(은퇴안수집사, 소양부)

▶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충언교회 벌써 56주년! 그동안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의 방주로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 주시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는 든든한 요새와 같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안연식(안수집사, 18교구)

▶ 충언의 56주년을 축하하며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장로인(집사, 20교구)

▶ 교회가 세워진 지 56년이나 지났네요.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서로 교제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가연(중등부)

▶ 온갖 어지러운 세상에 충언의 성도들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6년간 성장의 고통과 파도를 잘 건너고 자라온 교회의 역사를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일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용연(안수집사, 23교구)

▶ 교회의 건물과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56년 후에도 항상 성경에 기초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용용(장로, 행정위원장)

▶ 빛 있는 교회로 통해 여두음에 갇혀 있던 인생이 주님의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죄 인임을 깨닫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이 섰 포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사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충언교회로 초청되길 원합니다. 안연정(집사, 8교구)

▶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하면서, 교회를 잘 안다고, 신앙의 연륜을 내세우며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차가운 심장이 아닌 뜨거운 심장으로 십자가 품기를 기도합니다. 안중남(집사, 7교구)

▶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듣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하고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언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누게 아음소서.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님 만을 기뻐하는 충언교회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정미순(권사, 16교구)

▶ 주님의 교회인 충언교회가 56년의 시간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시며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세워지는 충언교회를 소망합니다.  
이경희(대학부)

▶ 암흑같은 세상에 등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박건일(집사, 15교구)

▶ 충언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배부르는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옥순(권사, 1교구)

▶ 앞으로도 교회가 크기 때문에 자칫 나눌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권위가 아닌 사랑이신 하나님의 권위만이 있는 교회, 진리를 분별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줄 아는 교회,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참 사랑이 풍성한 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은혜와 성령을 깨닫는 성도들로 가득 차는 교회, 세상의 참 빛이 되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욱 돈이 서가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최재필(집사, 9교구)



## 새가족 / 신종플루 예방

새가족양육부 8월 수료자 ②

## 인생의 주인, 예수님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고1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적과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직장일 관계로 만나게 된 한 집사님의 권유를 받아 중현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현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저의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분당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대로 항상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기를 소망합니다. (이경빈)

☞ 믿음은 한 번에 깨달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구하는 마음 속에 깃들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을 바라는 마음과 '어린 아이'와 같은 갈급한 마음 속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신성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는 본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전해영)

☞ 사실 전 새신자라 하기에 어색한 사람입니다.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 터라 제가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되는지라, 이곳에 와서 교육받는 24주 동안 다시금 나의 삶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때가 거의 모든 경우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라 교회에 나오기 직전까지도 마음속에 자신과의 전쟁으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첫 대예배 설교, 지금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그동안 상한 제 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라 너무나 오랜만에 받은 예배의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 대예배만 드리고 갈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려 했는데 예배 배우자의 권유로 바로 다음 주에 '새신자' 등록을 하고 새가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사귀이며 교제 역시 중요하지만 심령이 상한 저에게 새신자 교육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면서 말씀이 저를 치유하심을 느꼈습니다. 처음 예배에 나오기까지 그렇게 망설였는데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치유받는 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항상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감동시킴을 느꼈습니다. 연약하지만 교육을 통해 제가 얼마

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왜 주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귀한 교회로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새가족부를 수료하는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며 성결할 것을 결심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족하지만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결심을 드리며 앞으로 내 삶의 모든 필요에 대해 예수님만을 의지하리라 다짐합니다. (허 준)

##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1316 | 최경목 | 14 | 장년2부 | 김준광(14) |
| 1317 | 채누리 | 18 | 청년2부 | 정재석(20) |
| 1318 | 남병원 | 21 | 장년1부 | 박성근(11) |
| 1319 | 박정희 | 17 | 청년1부 | 허용우(24) |
| 1320 | 김영목 | 2  | 장년2부 | 최규태(2)  |
| 1321 | 강복남 | 12 | 장년2부 | 김기정(4)  |
| 1322 | 김현우 | 2  | 대학부  | 김정각(3)  |
| 1323 | 조정미 | 19 | 장년1부 | 장화숙(12) |
| 1324 | 김은지 | 3  | 청년1부 | 한숙자(1)  |
| 1325 | 김성실 | 12 | 청년1부 | 이경순(14) |
| 1326 | 김윤희 | 18 | 장년2부 | 임이림(18) |
| 1327 | 김태훈 | 22 | 고등부  |         |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말씀 중심,  
믿음의 중요성

저는 1년 동안 집을 떠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심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지금껏 생긴 일들이 모두 주님의 섭리임을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지금, 그리고 미래에 생길 일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로 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여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지금까지 제가 알고 지냈던 교회의 면모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정말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제가 다니 교회에서는 드림과 기타에 맞추어 가스펠송을 주로 했습니다. 이런 가스펠 곡들은 가요 쪽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이자 단점은 중독성이 있고 더 뽀이 듣기 쉽다는 점입니다. 듣다 보면 신이 나서 뛰는 사람들, 하늘로 팔을 뻗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 감동은 성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콘서트장에서 환호하게 되는 그런 흥분 상태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이 흥분 상태를 성령님의 은사로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보다는 성도 간의 친교를 중심으로 모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분반공부를 할 때에도 가끔은 성경공부보다는 친교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미국에 와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가 넘치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드리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 속에서 여러 경험을 하면서 말씀 중심과 믿음의 중요성,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유림 (고등부)

'손씻기'는  
신종플루 예방의 최선  
올바른 손씻기

신종플루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씻기입니다. 손 소독제나 물로 씻기만 해도 신종플루의 70%는 예방이 됩니다. 손을 씻은 후 흐르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출 후 귀가한 뒤, 대중이 많이 모인 곳에 다녀온 뒤,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평소에도 손씻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모임

1. 집사회 연합헌예회  
일시 : 13일(토) 15:30  
장소 : 제1교구 307호

2. 1월 13일(토) 15:30  
장소 : 제1교구 307호

별세

1. 임경식 씨(이준열 장도의 부인 - 유가족 임경식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결혼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출생

1. 김병석 군(김장식 안수집사-장도)와 김민서 씨(김장식 안수집사-장도)의 결혼식이 9월 13일(토) 15:30에 제1교구 307호에서 성대히 치러졌다. 주례는 김장식 안수집사-장도, 고사장은 김민서 씨 사부, 22주 경종산 9월 5일 별세, 79세)

특별 교회주변 전도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집사회 헌신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선교예배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후반기 회교구 개관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김장식회 정기집회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동서남북의 제7회 기도회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주요행사

일시 : 9월 13일(토)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장소 : 여전도회 15:30 구약성 경성교회 후 남전도회 19일(토) 14:00

9월

충현 기도의 창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라 함으로 가서 밤이 세도록 하나니 기도하시라”

1.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해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로 1:1이 되게 하소서.

2. 위임목사님의 영혼을 강권(강화) 하신다고 하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교) 2:2로 사용하게 하소서.

3. 모든 위임의 및 부서의 임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1:1)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1:16)로 세우시 주시.

4.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입국(1) 양생(전 4:6)되게 하소서.

5. 1·1·1 전도(전 1:3)와 충현 교회주변 전도(매일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소서.

6. 모든 민중과 영생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거리 교행(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전로와, 보내는 전로(1:8)로 되게 하소서.

7.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주: 1:12)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장대(2:3)를 통하여 금요양육회(4)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8. 충현의 재단(유·동산·복자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현재 주신 장인 양로원·남곡식식점 및 한양 충현원인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2:15)되게 하소서.

9. 피파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령(2:3)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새벽기도회 (9/14-9/20)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주일)

설교/기도자 김장식/김영은 유재천/변인식 강호성/김진석 윤완하/김정원 김근영/이상배 박준식/장기철 유원철/사영식

설교 본 문 배사의의을 례 8:12-17 례 8:12-17 례 8:12-17 례 8:12-17 례 8:12-17 례 8:12-17

예배 담당 (9/16-9/20)

사회 기도 찬 양

9/16 주요 I 그리스도는(마 7:28-29) 김장식 목사 최진철 주례 내 진정 사모하는(호산나 찬양대)

9/17 주요 II 주님께로 나아가자(마 11:28-30) 김백만 목사 김장식 주례 최 진석 지고서 온가(심로로 찬양대)

9/18 주요 III 김장식 목사 이은식 주례 예루살렘 찬양대 / 찬양 최현우 / 만도린 중주

9/19 주요 IV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현철 주례 이 세상의 친구들 / 불꽃 노은영(전임 연주자)

9/20 주요 V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내 맘의 주여 소망의소리 / 불꽃 노은영(전임 연주자)

주요 V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이만 오게스트와

주요 VI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VII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IX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I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II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IV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V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V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VI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VII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IX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X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X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XI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XIII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주요 XXIV 제자들의 요구(마 13:36-14:12) 박용현 목사 강 현 철 주례 오 신실한 주 / 바리새 찬양팀(예배 찬양대)

교회 오시는 길



심 기 사 분 들

■ 사무장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장로

■ 권역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

■ 집사